



대표이사 / 약학박사 정성욱 (Sung Ook Chung, Ph.D.)

일본 VR전략의 필요성

2002년 하반기 당시 450여 개에 달했던 바이오벤처기업들 중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구 개발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개발을 표방하는 벤처기업들이 외부 환경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밀한 자금 소요 계획 없이 회사를 운영해 온 것에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정책의 부재와 대기업들의 벤처기업과의 네트워킹 전략 부재,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결여 등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아무튼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처한 현재의

환경은 이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다고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기업에 닥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해외 벤처기업, 특히 일본 벤처기업과 연계하는 VR 전략 (Venture Relations Strategy)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이 일본의 벤처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개발 목표의 유사성이다. 일본 바이오산업협회(JB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바이오 벤처기업 수는 2002년 12월 현재 약 340여 개에 이르며 대부분이 2001년 이전에 설립됐다.

또한 대학교수의 연구 성과물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대학별 벤처 또는 실험실 벤처가 대부분으로, 규모 면에서 양국의 사정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개발

을 진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형 벤처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 개발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개발 목표 역시 국내 벤처기업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율 차를 활용한 연구개발 용역의 수주를 들 수 있다. 일례로 특정 유전자의 해석과 정보구축처럼 고도의 전문지식은 필요하지만 의외로 단순 노동 집약형인 업무를 일본에서 진행할 경우 1억엔(약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는 약 3억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1억엔의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한국의 벤처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추가로 인력 확충 등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벤처기업들로부터 얼마든지 크고 작은 관련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지리적인 장점이다. 일본 바이오 벤처기업의 30% 이상이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한국의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연계해 일하기에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바이오벤처기업들은 한국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고, 관심이 온통 미국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본 벤처기업과 연계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미국 벤처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리라 본다.

올해 3월 마크로젠이 일본 벤처기업인 트랜스제닉사에 게 주문형 Knock-out mouse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트랜스제닉사는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지난 2002년 12월 10일 일본동경증권거래소 소속 마더스(MOTHERS)에 상장됐으며, 아마노우찌제약, 쓰미토모화학 등 대기업과 거래하는 신약개발지원형 벤처기업이다.

기업규모 · 사업목적 유사한 일본 바이오벤처와의 연계

프로젝트 공동진행으로 윈·윈 효과 기대

■ 저자 약력

- 주식회사 인큐비아 대표이사 (2000-현재)
- 바이오벤처사업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1-현재)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학사 및 약사면허 취득 (1982-1986)
- 일본 동경대학 약학부 분자생물학교실/연구원 (1987)
- 일본 동경대학 약학부 분자생물학교실/생명약학 석사 취득 (1987-1989)

- 일본 동경대학 약학부 분자생물학교실 / 생명약학 박사 취득 (1989-1994)
-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혈액 종양학 교실 / 연구원 역임 (1994-1996)
- 미국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간사 역임 (1994-1996)
- 한국 SK제약 개발팀 과장 / 신규사업개발 및 라이선싱 업무 담당 (1997-1998)
- 제일제당 제약사업부 / 신규사업개발 및 바이오벤처 업무 담당 (1999-2000)
- 이메일 : sungook@incubia.com
- 연락처 : (011) 305-0642